

謹 故 崔 昌 壽 理 事 長 님 弔

이사장님을 그리며

이선생! 오랜 만이야. 잘 지내지.
어이, 김선생! 이리와 한 잔 받아.
수고 많지.

생전에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부르시며
악수를 청하시고, 어깨를 다독거리고
초임교사의 이름까지도 모두 불러주시던
이사장님의 따스한 손길, 큰 목소리

이제는 영정으로 저희 앞에 계시는 현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애절한 마음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생전에 온 힘을 기울이신
민족 사학의 명문, 대 동산의 증지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휘이 휘이
힘든 짐 벗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오늘, 우리 마음처럼 쓸쓸한 교정(校庭)에서 이사장(理事長)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슬픈 영결식(永訣式)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보니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쓰러 지시어 세상을 떠났던 지난 31일은 우리 동산인(東山人) 모두에게 가장 슬픈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디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으로 금방 나오실 것만 같은데, 이렇게 이사장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서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일에 쓰시려고 일찍 모셔 가셨을 거라도, 애써 위안하려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 솟구치는 안타까움과 눈물을 주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슬퍼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별세(別世)가 단순히 자연인(自然人)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 1975년도에 우리 동산에 이사(理事)로 취임(就任)하신 이래 지금까지 30여년간 교직원들의 단합과 학교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셨습니다. 사석(私席)에서는 호방한 웃음으로 공적(公的)인 자리에서는 문화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 후 1990년 "재단법인 동산 육영회" 이사장의 중책(重責)을 맡으신 뒤 "동산" 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어 오늘날 "동산" 도약(跳躍)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이 잘 길은 아직 멀고, 하실 일도 많은데 벌써 가시니 안타깝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히 가십시오. 뒤에 남은 저희들이 이사장님께서 생전에 몸소 보여주신 "동산정신"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학교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이사장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지만, 결코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사장님의 육신(肉身)만이 만물의 섭리에 따라 가셨을 뿐, 이사장님의 정신(精神)과 의지(意志)는 고스란히 "동산"에 남아서 영원히 빛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실 유족(遺族)들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위로(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2004년 9월 4일

동산중·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지난 8월 31일 호탕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시며 퇴근길에
오르시던 이사장님은 그날 저녁
말없이 영면에 드시고 9월 4일
평생을 몸 바치신 동산의 교정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신 후 많은
동산인들의 애도 속에 마지막
퇴근길에 오르셨다.

